

청년층의 자영업 진입에 관한 연구

신재열 (아오야마학원대학 지구사회공생학부 조교수)*

김종성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조교수)**

국 문 요 약

최근 몇 년간 청년자영업자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청년들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 노동시장을 검토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청년층의 자영업 노동시장에 관한 선행연구는 일부 연구에서 제한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특히 청년들의 자영업 진입요인을 별도로 검토한 연구는 부족하며, 분석방법도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자영업 진입연구에서 활용한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노동시장 조건과 가족 배경, 인적 자본의 축적수준 등이 다르므로 별도의 설명체계와 이론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5세~29세의 연령층을 별도로 구분하여 청년층의 자영업 진입요인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한국노동패널조사 9~20차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청년 실업률과 고용률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참조하였다. 분석대상은 현재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청년으로 한정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층로짓분석(multi-level logit model)을 활용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적 차원에서는 실업률이 낮고 고용률이 높을수록 청년층이 자영업에 진입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개인적 차원에서는 가구의 금융자본이 많고 안정적인 직업보다는 고수익을 추구하거나 직업 적성 적합도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자영업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과 부모의 자영업 경험은 청년층의 자영업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핵심주제어: 자영업, 청년자영업자, 밀어내기 가설, 끌어들이기 가설, 기업가정신, 위험감수성, 다층로짓분석

1. 서론

청년층의 취업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5.7%였던 청년(15~29세) 실업률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12.2%로 급증한 이후, 2013년 8%, 2015년 9.1%, 2018년 9.5%, 2019년 8월 현재 9.6%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중요한 정책과제로서 추진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청년층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의 저하와 높은 청년 실업률로 인해 청년들이 겪는 불안을 완화하고, 성장잠재력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청년창업 활성화 등과 같은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추진에 필요한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황보윤 외, 2013).

다만, 현재 자영업 진입에 관한 국내 대다수의 선행연구는 노동시장에서 은퇴 시기에 있거나 곧 은퇴를 맞이할 시기에 있는 베이비부세 세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황광훈, 2017). 실제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9년 8월을 기준으로 자영업자는 약 566만 명이며 이 중 50세 이상의 비중은 60.8%

지만, 15~29세의 비중은 3.1%에 불과하므로 50대 이상의 장년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전체 자영업자의 수가 2017년 570만 명, 2018년 568만 명, 2019년 566만 명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자영업자의 수와 비중은 2017년 147만 명(2.6%)에서 2018년 167만 명(2.9%), 2019년 174만 명(3.1%)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상황이 다른 연령층과 매우 다르다.

특히 실업률을 살펴보면 2018년을 기준으로 30대는 3.4%, 40대는 2.5%, 50대는 2.5%, 60세 이상은 3.1%로 대체로 3%대에 머무는 반면, 15~29세의 실업률은 9.5%에 이른다. 시계열 데이터를 살펴보면, 전체 실업률은 2000년 4.4%에서 2018년 3.8%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15~29세의 실업률은 8.1%에서 9.5%로 증가하였다.

그렇다면 자영업 시장에서 청년층의 비중이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이고 2000년대 이후의 실업률 증가 경향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가? 자영업이 개인의 특정한 상황에서 선택한 기회주의적 선택이라는 ‘밀어내기 가설’에 의하면 최근 몇 년간의 청년자영업의 증가 추세는 고용시장의 악화로 설명할

* 주저자, 아오야마학원대학 지구사회공생학부, 조교수, rec419@hanmail.net

** 교신저자,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조교수, 01041603713@kookmin.ac.kr

· 투고일: 2019-09-08 · 수정일: 2020-01-12 · 수정일: 2020-02-09 · 게재확정일: 2020-02-19

수 있겠다. 그러나 초기 자금력과 사업 노하우가 부족한 청년층이 자영업에 진입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며, 선행연구에 의하면 연령과 자영업 진입 경향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고, 일반적으로 청년층은 자영업보다는 임금노동을 선택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편이다(Simoes et al., 2016).

따라서 전체 연령 혹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도출한 선행연구의 함의를 청년자영업 시장 분석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청년들의 자영업 진입 메커니즘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가 있으므로, 청년들의 자영업 진입요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연구 틀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천영민·박가열, 2018).

하지만 청년층의 자영업 진입에 관해서는 일부 연구에서 제한적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국내에서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Korean Labor Income & Panel Study)를 이용하여 구조적 수준에서의 실업률의 증가와 개인적 수준에서의 금융자본과 인적자본의 보유수준 및 기업가정신의 발현이 15~29세 청년층의 자영업 진입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는 자영업 진입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분석에 필요한 가설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분석에 사용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와 분석방법을 소개한다. 이후 4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소개하고, 5장에서는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 및 학술적, 사회적 함의를 정리한다.

II. 선행연구 및 연구가설

2.1 선행연구 검토

2.1.1 자영업의 정의

본 연구에 필요한 주요 가설을 설정하기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자영업’의 정의, 진입 결정 이론과 실증연구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겠다. 우선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청년’을 15~29세로 정의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를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나 특정한 사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활동하는 작가, 배우, 프리랜서 등을 말하는 것’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합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 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으로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지칭한다(황광훈,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 자영업자’를 통계청의 정의에 따라 ‘15~29세의 청년 중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특정 사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활동하는 프리랜서’로 한정하고, 고용원이 있는 청년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청년자영업자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1.2 자영업 진입의 주요한 설명요인

자영업 선택에 관한 이론으로는 거시이론과 미시이론이 있다(전병유, 2003). 거시이론에서는 노동 시장조건이 일자리 선택의 확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끌어들이기 가설(propensity hypothesis)’과 ‘밀어내기 가설(unemployment push hypothesis, refugee effect)’이 있다. ‘끌어들이기 가설’에 따르면, 자영업은 대체로 임금노동보다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적인 선택의 결과이며, 위험을 감수하고 기업가정신을 발휘한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거시경제 조건이 좋을 때 실업률이 낮아지고 또한 실업률이 낮으면 유효수요도 증가하기 때문에 자영업 실패확률이 낮다고 판단하여 자영업을 선택한다. 설령 자영업에서 실패하더라도 임금근로자로 쉽게 재취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영업에 진입하는 경향이 있다(Taylor, 1996; Blanchflower & Oswald, 1998). 이에 반해 ‘밀어내기 가설’은 자영업은 대개 기회주의적인 선택이며, 자영업자들이 임금근로자보다 특별한 능력을 갖췄다는 것에 대해 부정한다. 단지 특정한 지점에서 특정한 시기에 자신들이 처해 있는 환경적인 조건에 대한 반응의 한 형태일 뿐이라고 가정한다. 이는 적절한 임금 근로의 기회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밀려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다(Moore & Mueller, 2002; Livanos et al., 2009; Faria et al., 2010). 하지만, 어느 한 가설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실업률과 자영업 진입의 관계는 매우 논쟁적이다. 최근에는 끌어들이기 가설과 밀어내기 가설의 효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결과도 종종 보고되고 있다(Halicioglu & Yolac, 2015). 자영업 선택에 관한 미시적인 접근방법에서는 주로 젠더, 연령, 혼인상태와 자녀 여부, 기업가적 자본(부모의 자영업 경험, 배우자의 자영업 경험), 인성(위험 수용도, 기업가정신) 인적자본(학력, 과거의 직무 경험), 건강상태, 국적과 인종, 금융자본(주로 가구의 자산 수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Simoes et al., 2016). 기업가적 자본은 ‘기업체를 운영하는 고유한 방식 또는 사업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하는 위험에 대한 태도’로 정의할 수 있다(Taylor, 2001). 선행연구에서는 기업가적 자본을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부모님의 자영업 경험 여부를 활용하고 있으며, 부모가 자영업을 경험한 경우, 자녀도 상대적으로 자영업자가 되기 쉽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부모가 가지고 있던 자영업과 관련된 기술, 지식, 숙련, 태도 등이 자녀에게 인적자본의 형태로 서 이전되기 때문이다. 둘째, 부모가 축적해온 네트워크, 상권 등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부모로부터 유무형의 인적자본 혹은 기업가적 자본을 물려받을 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영업을 경험한 경우, 자녀도 자영업자가 되기 쉽다(Hundley, 2006; Andersson & Hammarstedt, 2011; Barnir & McLaughlin, 2011). 개인의 인성적 측면에서는 위험에 관대하고 기업가정신이 높을수록 고위험-고수익 모델을 받아들이기 쉬우므로 자영업에 적극적으로 진입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Caliendo et al., 2009). 학력이 자영업 진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매우 논쟁적이며, 그 효과도 연

구에 따라 다르다. 학력이 자영업 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는 반면(Kim et al., 2006; 신계열, 2011), 학력은 자영업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지만(Clark & Drinkwater, 2000), Blanchflower & Oswald(1998)는 저학력 혹은 고학력자에 한정해서만 학력이 자영업 진입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그 외 가구의 자산 수준도 자영업 선택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며,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구의 자산 수준이 높을수록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진다(Evans & Jovanovic, 1989).

2.1.3 자영업 진입에 관한 국내연구 동향분석

자영업 선택에 관한 국내연구도 앞서 제시한 거시·미시이론을 중심으로 한 연구체계에 따라 다양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자영업에 관한 본격적 연구의 효시로는 류재우·최호영(1999)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여 자영업의 기본특징을 분석하고, 1990년까지 감소하던 자영업 비율은 이후 반전하여 1998년까지 상승하고 있는 것을 역사적, 사회적, 제도적, 경제적인 요인들에 기인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후 이 주제는 류재우·최호영(2000) 연구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어지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패널화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0년대 이후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이 증가한 것은 자영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이를 장기간 지속한 경향이 외환위기 이전 자영업 비율 증가한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류재우·최호영(1999)의 연구가 발표된 이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자영업의 선택에 관한 미시적인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금재호·조준모, 2000; 김우영, 2000).

김우영(2000)은 개인적인 특성(연령, 학력, 혼인 여부 등)과 본인의 과거 취업형태(고용주/자영업자/정규직/비정규직), 부모의 취업형태, 재산상의 제약요인 등을 중심으로 개인이 자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취업형태의 비교우위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고용주를 제외하고는 다른 취업형태에 비해 자영업에 비교우위가 있는 사람이 대체로 자영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용주를 선택하는 것이 비교우위에 있음에도 임금 근로를 선택하는 것(역선택)은 임금 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이동하는 비용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결국, 이러한 역선택이 일어나는 것은 자영업이 내부적으로 매우 이질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금재호·조준모(2000)는 우리나라의 자영업 노동시장을 생산성이 매우 낮아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종사하게 되는 저능력군과 생산성이 높고 일반적인 인적자본을 많이 축적하고 있어 자영업을 통해 자신의 소득을 극대화하려는 고능력자군들로 이분화되어있었다는 가설을 설정한 후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직장경험이 없는 신규취업자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고 연령이 높아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취업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을 선택

하는 반면, 일반적 인적자본(생애 취업 기간)에 대한 한계수익률이 높고, 상대적으로 높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자영업자가 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것은 국내 자영업자 노동시장이 저능력군과 고능력군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을 실증분석한 최초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성지미(2002)는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던 여성의 자영업 선택을 설명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여성표본만을 추출하여 여성자영업의 선택 결정 요인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20대를 기준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영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유(2003)는 자영업 선택에 관한 이제까지의 다양한 실증분석연구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와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자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의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거시분석에서는 경기변동과 노동시장의 조건을 반영하는 실업률과 자영업 선택 간의 관계는 외환위기 이후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자영업은 실업에 대한 하나의 대안인 ‘밀어내기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미시분석에서는 학력이나 직업 경험과 같은 인적자본은 남성의 자영업 선택에 있어 정(+)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는 직업 경험이 자영업 선택에 부(-)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가적인 문화와 환경을 반영하는 자영업 경험 여부, 부모가 자영업자인가 여부는 남녀 모두 유의하게 자영업의 선택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이후 자영업 선택에 관한 국내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의 토대 위에서 위험감수성(Risk taking)을 주요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했다(어수봉 외, 2012). 위험자산과 현금 사이의 선택에 대한 정보로부터 위험 선호체계를 파악하고 위험 감수도 또는 위험 감수지표를 임시로 정의한 후, 위험 감수지표가 자영업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위험 감수지표가 남성과 여성 모두에 있어 자영업 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다. 어수봉 외(2012)의 연구에서도 개인의 위험감수도가 증가할수록 자영업의 선택확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자영업 선택에 관한 연구는 자영업 노동시장 내에 존재하는 근로자의 이질성과 소득 불평등에 주목하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안중순, 2015; 김도균, 2018).

2.2 연구가설 설정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청년층의 자영업 진입은 다음과 같은 요인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우선 구조적 관점에서 고용시장의 변화가 자영업 진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밀어내기 가설에 따르면 노동시장의 고용조건이 악화될수록 자영업의 비중이 증가하며, 선행연구에서는 실업률을 이용하여 노동시장의 고용조건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실업률은 경제활동 참가인구에 한정하여 계산하는 지표이므로 노동시장의 고용조건을 왜곡(과소추정)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실업률보다 고용률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고용조건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업률과 고용률의 효과를 교차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1-1: 청년 실업률이 높을수록, 청년층은 자영업으로 밀려나는 경향이 강해진다.

가설 1-2: 청년 고용률이 낮을수록, 청년층은 자영업으로 밀려나는 경향이 강해진다.

둘째, 개인적 수준에서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 기업가적 자본, 혹은 금융자본을 가지고 있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쉽게 자영업에 진입할 수 있다. 특히 15-29세는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단계이고 자산의 축적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업가적 자본과 금융자본의 영향력이 다른 연령층보다 더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슷한 수준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기업가적 성향이 강하고 위험감수성이 높은 청년일수록 보다 적극적으로 자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가설 2-1: 대출 이상의 학력을 가진 청년들이 인적자본을 활용하기 위해 자영업에 진입한다.

가설 2-2: 부모가 자영업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 부모로부터 이전받은 유무형의 기업가적 자본을 활용하기 위해 자영업에 진입한다.

가설 2-3: 금융자본이 충분할 경우 자영업에 진입한다.

가설 2-4: 안정성이 높은 일자리를 원할수록 임금노동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가설 2-5: 임금 또는 수입이 많은 일자리를 추구할수록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III. 데이터 및 분석방법

3.1 데이터 및 분석변수

3.1.1 데이터 소개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앞서 제시한 연구가설을 검증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1998년에 1차 조사를 시작한 이후, 매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2017년 제20차 조사까지 공표되어있다(김유빈 외, 2018).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 관련 변수가 포함되기 시작한 9차(2006년) 이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요 가설을 검증한다.

분석대상은 15~29세의 실업자를 제외한 경제활동인구이며,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사례 수는 9차(2,817), 10차(2,766), 11차(2,609), 12차(2,977), 13차(2,716), 14차(2,545), 15차(2,443), 16차(2,342), 17차(1,823), 18차(2,305), 19차(2,283), 20차(2,420)이다.

3.1.2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종사상 지위의 자영업 여부이다. 고용주/자영업자는 1로, 상용직/임시직/일용직/가족 종사자는 0으로 코딩하였다.

가족 종사자의 자영업 포함 여부는 연구에 따라 상이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자영업 정의에 근거하여, 가족 종사자는 자영업에 포함하지 않았다.

3.1.3 설명변수

청년 실업률과 청년고용률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공표 결과를 활용하였다. 인적자본인 학력은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4년제 이상은 1, 미만은 0으로 코딩하였다. 기업가적 자본인 부모의 자영업 여부는 응답자가 14세일 때의 종사상 지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자영업자는 1, 비자영업자는 0으로 코딩하였다. 금융자본은 응답자가 포함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은행예금, 주식/채권/신탁, 저축성 보험, 아직 타지 않은 계, 개인적으로 타인에게 빌려준 돈 등이 전부 포함된다.

기업가정신은 선행연구를 참조해서 좋은 일자리의 조건에 관한 태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질문 문항은 “어떤 일자리 또는 직장이 ‘좋은 일자리(직장)’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골라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이며, 선택지는 ‘(1) 안정적인 일자리 (2)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자리 (3) 장래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 (4) 자신의 적성, 취향에 맞는 일자리 (5) 임금 또는 수입이 많은 일자리 (6) 자율성이 보장되는 일자리’이다. 각각의 항목은 더미 변수로 재가공하였으며, 해당 항목을 선택한 경우에는 1,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0을 부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 안정적인 일자리’를 기준으로 각 항목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에 비해 ‘자신의 적성, 취향에 맞는 일자리’, ‘임금 또는 수입이 많은 일자리’, ‘자율성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선택할 경우 기업가정신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3.1.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 성별, 연령, 혼인상태, 부동산 소유 여부, 거주지역, 직업, 산업을 추가하였다. 성별은 남성은 1, 여성은 0으로 코딩하였으며, 연령은 15세에서 29세까지의 연속변수이다.

혼인상태는 미혼, 기혼으로 분류하였으며, 미혼을 기준변수로 하였다. <표 1>과 <표 2>는 변수의 기초통계와 연도별 실업률과 고용률을 제시하고 있다.

<표 1> 기초통계

구분	변수	전체평균 (표준편차)
[종속변수]		
종사상 지위	자영업 더미	0.04(0.02)
[설명변수]		
인적자본	학력 (대졸 여부)	0.36(0.48)
기업가적 자본	부모 자영업	0.13(0.34)
금융자본	가구 부동산	0.23(0.42)
	가구 금융자산	7.34(1.36)
기업가정신	높은 안정성	0.53(0.50)
	사회적 인정	0.06(0.24)
	발전 가능성	0.14(0.35)
	적성 및 취향	0.21(0.41)
	임금 또는 수입	0.04(0.19)
노동시장	자율성	0.01(0.11)
	실업률(level 2)	8.18(0.89)
	고용률(level 2)	41.35(1.25)
[통제변수]		
인구학적 특성	성	0.50(0.50)
	연령	22.08(4.54)
	미혼	0.90(0.29)
	기혼	0.09(0.29)
거주지역	서울	0.20(0.40)
	광역시	0.29(0.45)
	경기도	0.24(0.43)
	기타지역	0.27(0.45)
산업	일반 서비스	0.35(0.48)
	전문서비스	0.35(0.48)
	기타	0.31(0.46)
직업	전문직	0.34(0.47)
	사무직	0.23(0.42)
	판매서비스	0.22(0.41)
	기능/제조	0.16(0.36)
	단순 노무	0.05(0.21)

분석에는 대수치환 값을 투입하였다. 부동산 소유 여부도 세대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주택, 건물, 임야, 토지 등과 관계 없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 비소유자는 0으로 코딩하였다. 지역은 서울, 광역시, 경기도, 기타지역으로 분류하였으며, 서울을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직업은 전문직, 사무직, 판매 서비스직, 기능/제조직, 단순 노무직으로 분류하였으며 전문직을 기준변수로 설정하였다. 산업은 일반 서비스산업, 전문서비스산업, 기타산업으로 분류하였다. 일반 서비스산업에는 도소매판매업, 운수창고업, 숙박 음식업, 인력여가오락 서비스업이 포함되어있다.

전문서비스업에는 출판방송정보서비스업, 보험금융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의료보건업, 교육서비스업이 해당한다. 기타산업은 농림수산물산업, 제조업, 전기수도환경시설관리, 건설업, 자동차 및 수리업으로 구성되어있다. 분석에서는 기타산업을 기준변수로 설정하였다.

<표 2> 청년층 실업률 및 고용률 추이

년도	실업률(%)	고용률(%)
2006년	7.90	43.80
2007년	7.20	43.20
2008년	7.10	41.90
2009년	8.00	40.60
2010년	7.90	40.40
2011년	7.60	40.40
2012년	7.50	40.30
2013년	8.00	39.50
2014년	9.00	40.50
2015년	9.10	41.20
2016년	9.80	41.70
2017년	9.80	42.10

3.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청년 실업률과 청년고용률의 효과를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 다층로짓분석(multi-level logit model)을 수행하였다.¹⁾ 다층로짓분석에서는 개인 수준변수와 집단수준의 분산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분석모형은 아래와 같다.

Level 1:

$$Y_{dep} = \beta_{oj} + \sum focal\ factors + \sum Controls + r_{ij}$$

Level 2:

$$\beta_{oj} = r_{00} + r_{01}MacroIndex_j + u_{0j}$$

분석은 Enders & Tofighi(2007)의 논의를 참조하여, 전체평균 중심화변환(CGM)과 집단평균 중심화변환(CWC)의 효과를 각각 확인하였다. 연속변수를 집단평균 중심화변환을 한 경우에는 더미 변수도 이에 맞추어 효과코딩(effect coding)을 하였다. 효과코딩을 하는 경우 상수(constant)는 관찰 값의 전체평균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각 변수의 베타 값과 t-test 값은 전체평균과의 비교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평균 중심화 변환을 하는 경우에는 집단 내와 집단 간의 상호결합(a weighted combination of within and between) 문제와 분산요소(Variance component)가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 수준변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반면, 집단평균 중심화 변환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인 수준과 집단수준의 변수 관계가 직교적(orthogonal)이 되기 때문에 집단수준의 변수의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Hox, 2013; Shin, 2017; Shin,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 실업률과 청년고용률의 효과는 전체평균 중심화 변환 모델을 기준으로 해석하였으며, 개인 수준변수인 인적자본, 좋은 일자리 조건은 집단평균 중심화 변환 모델을 기준으로 해석하였다.

¹⁾ 본 연구에서는 다층로짓분석을 하기에 앞서, 패널 분석의 수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하우스만 검정을 수행하였으며(Prob>chi2=0.6149), 분석결과 시간고정효과(time fixed effect)가 필요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랜덤효과모형을 검토하였으며, 패널탈락(panel dropout)으로 인한 결측치가 분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Hox et al., 2010) 종단다층모형(longitudinal multilevel model)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IV. 분석결과

이 절에서는 앞서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6개의 분석모형을 검토하였으며, 구체적인 모형설정 전략은 Shin(2017)을 참조하였다. 모형 1에서는 집단평균 중심화 변환(CWC) 방법으로 통제변수만을 투입하였다. 모형 2와 모형 3에서는 전체평균 중심화 변환(CGM) 방법으로 실업률과 고용률의 효과

를 확인하였다. 모형 4와 모형 5에서는 각각 실업률과 고용률을 통제된 상태에서 인적자본, 기업가적 자본, 금융자본, 기업가정신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모형 6에서는 실업률과 고용률을 동시에 통제된 상태에서 개인 수준변수의 효과를 재확인하였다. 모형 4부터 모형 6까지는 집단평균 중심화 변환(CWC) 방법을 이용하였다. 우선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모형 1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청년층 자영업 진입에 관한 분석결과(1)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B(SE)	Odds	B(SE)	Odds	B(SE)	Odds
[인적자본]						
학력 (대졸 여부)			0.165(0.08)	1.179	0.142(0.08)	1.153
[기업가적 자본]						
부모 자영업 여부			0.148(0.19)	1.160	0.154(0.19)	1.166
[금융자본]						
가구 부동산			0.744(0.16)***	2.104	0.788(0.17)***	2.198
가구 금융자산			0.085(0.06)	1.089	0.069(0.06)	1.072
[기업가정신]						
사회적 인정			0.121(0.32)	1.128	0.094(0.32)	1.099
발전 가능성			0.259(0.20)	1.295	0.249(0.19)	1.282
적성			0.616(0.14)***	1.852	0.618(0.14)***	1.854
임금 또는 수입			1.080(0.22)***	2.943	1.038(0.23)***	2.824
자율성			0.216(0.51)	1.241	0.211(0.51)	1.234
[통제변수]						
성	0.244(0.07)***	1.276	0.396(0.15)**	1.486	0.413(0.15)**	1.511
연령	0.138(0.32)***	1.148	0.146(0.03)***	1.157	0.150(0.03)***	1.162
기혼	0.879(0.19)***	2.409	0.880(0.20)***	2.412	0.902(0.20)***	2.466
광역시	-0.022(0.06)	0.978	-0.019(0.11)	0.981	-0.034(0.12)	0.967
경기도	-0.176(0.06)**	0.839	-0.380(0.10)***	0.686	-0.422(0.10)***	0.655
기타지역	-0.026(0.07)	0.974	0.029(0.13)	1.029	0.006(0.13)	1.006
[산업] 일반 서비스	0.552(0.07)***	1.737	0.907(0.15)***	2.477	0.901(0.15)***	2.461
[산업] 전문서비스	0.589(0.12)***	1.802	1.178(0.27)***	3.247	1.179(0.27)***	3.251
[직업] 사무직	-0.777(0.10)***	0.460	-1.519(0.25)***	0.219	-1.534(0.25)***	0.216
[직업] 판매서비스	0.451(0.07)***	1.571	1.147(0.19)***	3.149	1.124(0.190)***	3.077
[직업] 기능/제조	-0.187(0.15)	0.830	-0.136(0.32)	0.873	-0.164(0.32)	0.848
[직업] 단순 노무	-0.513(0.24)*	0.599	-1.773(0.96)	0.170	-1.810(0.097)	0.164
[Level -2]						
실업률(level 2)			-0.228(0.06)***			
고용률(level 2)					0.058(0.29)*	
[Residual]						
Thresholds	4.557(0.31)***		3.210(0.68)		7.426(1.17)***	
Level -2	0.000(0.00)		-0.228(0.00)		0.000(0.00)	
[Model Fit]						
Log Likelihood	-842.235		-780.603		-783.458	
AIC	1716.471		1609.205		1614.915	

[p-value(유의수준) : *** p<0.001 / ** p<0.01 / * p<0.05]

우선 남성이 여성보다 1.276배 자영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영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 혼인상태와 관련해서는 기혼일 경우 미혼에 비하여 약 2.4배 자영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산업영역별로는 기타 서비스업에 비교하여 일반 서비스, 전문서비스업에 진입할 확률이 각각 1.737배, 1.802배로 계산되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 진입

확률은 0.460, 판매서비스 진입확률은 1.571배로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모형 2에서는 전체평균 중심화 변환(CGM)으로 실업률의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정확한 계산을 위해 개인 수준변수도 전 부 모델에 포함하였다. 분석결과, 실업률이 낮을수록 자영업에 진입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0.228). 따

라서 수치상으로는 가설 1-1은 기각된다. 모형 3에서도 전체 평균 중심화 변환(CGM)으로 고용률의 효과를 검토하였으며, 고용률이 높을수록 자영업 진입확률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B= 0.058)²⁾. 따라서 가설 1-2도 기각된다. 또한, 모형 2와 모형 3의 결과를 종합하면, 청년층 자영업 노동시장에서는 밀어내기 가설보다는 끌어들이기 가설이 더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다³⁾.

모형 4, 모형 5, 모형 6에서는 집단평균 중심화 변환(CWC)을 적용하여 개인 수준변수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우선, 모형 4, 모형 5, 모형 6의 통계치가 매우 유사하고 모형 1에서 확인한 통제변수의 효과도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분석결과는

매우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다만, 모형 5와 모형 6에서 고용률의 통계적 효과가 사라졌으나, 이는 집단평균 중심화 변환(CWC)을 사용하여,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적자본, 기업가적 자본, 금융자본 및 기업가정신 변수의 효과는 AIC가 가장 낮은 모형 4를 기준으로 제시하겠다.

우선 인적자본과 기업가적 자본은 청년층의 자영업에 진입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금융자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2-1과 2-2는 기각하고 2-3은 채택한다.

<표 4> 청년층 자영업 진입에 관한 분석결과(2)

변수	모형 4		모형 5		모형 6	
	B(SE)	Odds	B(SE)	Odds	B(SE)	Odds
[인적자본]						
학력 (대졸 여부)	0.083(0.04)	1.087	0.069(0.04)	1.072	0.083(0.04)	1.086
[기업가적 자본]						
부모 자영업	0.148(0.19)	1.159	0.154(0.19)	1.166	0.150(0.19)	1.162
[금융자본]						
가구 부동산	0.744(0.16)***	2.105	0.784(0.17)***	2.191	0.735(0.16)***	2.086
가구 금융자산	0.083(0.069)	1.087	0.082(0.06)	1.085	0.084(0.06)	1.087
[기업가정신]						
사회적 인정	0.061(0.16)	1.063	0.046(0.16)	1.047	0.063(0.16)	1.065
발전 가능성	0.128(0.10)	1.136	0.124(0.10)	1.132	0.123(0.10)	1.131
적성	0.307(0.07)***	1.359	0.308(0.07)***	1.361	0.304(0.072)***	1.355
임금 또는 수입	0.538(0.11)***	1.713	0.518(0.11)***	1.679	0.532(0.11)***	1.702
자율성	0.108(0.25)	1.114	0.109(0.25)	1.115	0.107(0.25)	1.113
[통제변수]						
성	0.199(0.07)**	1.220	0.213(0.07)**	1.237	0.200(0.07)**	1.221
연령	0.146(0.03)	1.157	0.141(0.03)***	1.151	0.147(0.03)***	1.158
기혼	0.879(0.20)***	2.408	0.930(0.19)***	2.534	0.875(0.20)***	2.399
광역시	-0.008(0.05)	0.992	-0.017(0.06)	0.983	-0.007(0.05)	0.993
경기도	-0.188(0.05)***	0.828	-0.215(0.05)***	0.807	-0.188(0.05)***	0.829
기타지역	0.013(0.06)	1.014	0.001(0.06)	1.001	0.013(0.068)	1.013
[산업] 일반 서비스	0.453(0.07)***	1.574	0.450(0.075)***	1.568	0.453(0.07)***	1.573
[산업] 전문서비스	0.589(0.13)***	1.802	0.592(0.13)***	1.807	0.588(0.13)***	1.801
[직업] 사무직	-0.761(0.12)***	0.467	-0.767(0.12)***	0.464	-0.766(0.12)***	0.465
[직업] 판매서비스	0.575(0.09)***	1.777	0.560(0.09)***	1.750	0.576(0.09)***	1.779
[직업] 기능/제조	-0.068(0.16)	0.935	-0.083(0.16)	0.921	-0.070(0.16)	0.932
[직업] 단순 노무	-0.884(0.48)	0.413	-0.906(0.48)	0.404	-0.884(0.48)	0.413
[Level -2]						
실업률(level 2)	-0.242(0.06)***				-0.237(0.05)***	
고용률(level 2)			0.044(0.031)		0.032(0.02)	
[Residual]						
Thresholds	1.949*		5.841(1.66)***		3.312(1.43)*	
Level -2	0.000(0.00)		0.000(0.00)		0.000(0.00)	
[Model Fit]						
Log Likelihood	-780.714		-784.288		-780.544	
AIC	1609.427		1616.577		1611.108	

[p-value(유의수준) : *** p<0.001 / ** p<0.01 / * p<0.05]

2) 실업률, 고용률과 관련하여 자기 상관 (serial correlation) 특히 first-order serial correlation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본 연구에서는 효율성 (efficiency)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3) 실업률과 관련하여 전병유(2003)는 KLIPS를 활용하여 밀어내기 가설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으나, 이 연구는 KLIPS의 1차-4차 자료만 활용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KLIPS 9차-20차를 활용했으며, 청년층(15-29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전병유(2003)의 연구에 활용된 연구자료 및 대상이 서로 다르다.

청년층이 자영업에 진입하는 데 있어 기업가정신은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안정성’, ‘사회적 인정’, ‘발전 가능성’, ‘자율성’은 자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적성’과 ‘임금 또는 수입’이 자영업 선택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승산 비를 계산하면, ‘적성’은 1.359, ‘임금 또는 수입’은 1.713이다. 따라서 자영업 선택의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수익 추구 및 직업 적성 적합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2-4과 가설 2-5를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V. 요약 및 함의

5.1 요약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에 진입하는 동기가 연령대에 따라 상이 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청년층의 자영업 진입요인을 구조적-개인적 수준에서 검토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⁴⁾

우선, 구조적 수준에서는 실업률이 낮고 고용률이 높을수록 청년층이 자영업에 진입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과 고용률의 효과는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나, 가설 1-1과 가설 1-2가 모두 기각되었기 때문에, 분석결과만 놓고 본다면 밀어내기 가설보다는 끌어들이기 가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미시적 수준에서는 인적자본과 부모의 자영업 경험은 청년층이 자영업에 진입하는 데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반면, 가구의 금융자본은 자영업 선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초기투자비용을 감당해야 하는데, 저축액이 부족한 청년층은 가구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가구로부터 적절한 금융지원을 받지 못한 청년들의 경우에는 자본 부족의 문제로 자영업에 진입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기업가정신과 관련해서도 안정적인 일 자리를 추구하는 청년들은 임금노동을 선택하는 반면, 고수익 혹은 적성을 중요시하는 청년들은 자영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5~29세의 청년들은 자영업을 고수익 고위험 모델 및 자신의 직업 적성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5.2 함의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산업과 직업에서는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15~29세의 청년들도 진입장벽이 낮은 서비스업에 진입하는 경향이 있으며, 가구의 금융자본이 자영

업 진입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는 중장년층에 비교하여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근로 혹은 사업소득을 바탕으로 사전에 창업자금을 확보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청년층의 자영업 진입에 있어서 가구 금융자본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금력이 부족하지만,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더 쉽게 자영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저소득계층 청년 대상 다양한 창업금융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밀어내기 가설이 기각되고 끌어들이기 가설이 채택되었다. 이것은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상반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청년층의 자영업 진입 메커니즘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필요성이 드러나는 지점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학술적인 관점에서 청년층 자영업 진입연구에 있어 기업가정신의 효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까지 자영업 관련 선행연구는 가구 자산으로 대표되는 세대 간 부의 이전과 노동시장의 효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단순한 경제적 조건만이 자영업 진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태도와 의지도 의사결정과 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조건과 개인의 태도를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청년층의 자영업 진입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위험감수성과 기업가정신의 효과를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한계로 인하여, 직업 선택의 이유에 관한 변수를 기업가정신의 대리지표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기업가정신이 자영업 진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측정하였다고 보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둘째, 자영업에 진입하기 이전의 직업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동학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고 보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비록 자영업 생존에 관한 연구이기는 하지만 신재열(2011)에 따르면, 이전 직업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에 따라, 이후의 직종 선택이 판이하게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청년층의 자영업 진입의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직업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실업률과 고용률의 통계적 효과를 근거로 밀어내기 가설을 기각하고 끌어들이기 가설을 채택하였으나, 밀어내기 가설과 끌어들이기 가설을 보다 엄밀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자영업 진입 이전의 고용상황도 분석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약 임금노동자였던 청년들이 자영업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확인된다면, 끌어들이기 가설이 보다 설득력을 얻겠지만, 장기실업 상태에 있던 청년들이 자영업에 진입하는 경향이 있다면 밀어내기 가설이

4)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연구모형을 설계하였으나, 분석대상을 15~29세 경제활동인구로 하였고, 기업가정신 관련 변수를 탐색적으로 추가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을 가진다.

더욱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비록 본 연구에서는 15-29세 청년층에 한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기업가정신에 관한 변수가 추가된 것 외에는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분석 모형에 큰 변화는 없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청년층에 특화된 별도의 이론과 분석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 진입만을 연구하였으며 자영업 유지 기간 및 이탈 그리고 자영업자의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자영업은 자영업에 진입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자영업에 진입한 이후 경제적으로 안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년 관련 창업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여 청년층의 자영업이 활발해졌다는 것과 자영업에 진입한 청년층이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위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맥락의 이야기이다. 후속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자영업에 진출한 청년들의 자영업 성장, 유지 및 이탈에 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

- 금재호·조준모(2000). 자영업의 선택에 관한 이론 및 실증분석. *노동경제논집*, 23, 81-107.
- 김도균(2018). 연령별 자영업 경험과 소득계층 이동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25(2), 281-304.
- 김우영(2000). 취업형태의 비교우위와 자영업주의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 *노동경제논집*, 23, 55-80.
- 류재우·최호영(1999). 우리나라 자영업 부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2(1), 109-140.
- 류재우·최호영(2000). 자영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노동력의 이동. *노동경제논집*, 23(1), 137-165.
- 성지미(2002). 여성의 자영업 결정 요인과 경력단절 가능성. *노동경제논집*, 25(1), 161-182.
- 신재열(2011). *자영업의 일자리 이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안중순(2015). 자영업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이질성과 사회적 위험대응의 계층 간 차이. *사회복지정책*, 239-264.
- 어수봉·유길상·최기성(2012). 위험 태도가 자영업 선택에 미치는 효과. *산업노동연구*, 18(1), 35-49.
- 전병유(2003). 자영업 선택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6(3), 149-179.
- 천영민·박가열(2018). 대졸자 창업 실태와 창업 관련 요인 탐색적 분석. *2018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논문집*, 2018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서울:한국고용정보원.
- 김유빈·이지은·최승주·신선옥·이혜정·정현상(2018). *제20차(2017) 한국노동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특별자치시: 한국노동연구원.
- 황광훈(2017). 늘어나고 있는 청년자영업자. *고용이슈*, 10(5), 5-25, Retrieved from <https://www.keis.or.kr/user/extra/main/2103/publication/publicationList/jsp/LayOutPage.do?categoryIdx=130&pubIdx=4041&spage=1&onlyList=N>.
- 황보운·김재형·방중혁(2013). 청년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성과에 미치는 지원 요인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8(1), 149-160.
- Ahn, J. S.(2015). Divisions in Socioeconomic Status and Risk Responses of the Self-Employed in Korea. *Social Welfare Policy*, 42(2), 239-264.
- Andersson, L., & Hammarstedt, M.(2011). Transmission of self-employment across immigrant generations: the importance of ethnic background and gender. *Review of Economics of the Household*, 9(4), 555-577.
- Barnir, A., & McLaughlin, E.(2011). Parental self-employment, start-up activities and funding: exploring intergenerational effects. *Journal of Developmental Entrepreneurship*, 16(03), 371-392.
- Blanchflower, D. G., & Oswald, A. J.(1998). What makes an entrepreneur?. *Journal of labor Economics*, 16(1), 26-60.
- Caliendo, M., Fossen, F. M., & Kritikos, A. S.(2009). Risk attitudes of nascent entrepreneurs—new evidence from an experimentally validated survey. *Small business economics*, 32(2), 153-167.
- Chun, Y. M., & Park, G. Y.(2018). An Exploratory Analysis on the Actual Condition of University Graduate Start-ups and Factors Related to Start-up. *Journal of the 2018 Employment Panel Survey*, 2018 Employment symposium. Seoul: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 Clark, K., & Drinkwater, S.(2000). Pushed out or pulled in? Self-employment among ethnic minorities in England and Wales. *Labour Economics*, 7(5), 603-628.
- Enders, C. K., & Tofighi, D.(2007). Centering predictor variables in cross-sectional multilevel models: a new look at an old issue. *Psychological methods*, 12(2), 121.
- Evans, D. S., & Jovanovic, B.(1989). An estimated model of entrepreneurial choice under liquidity constrain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7(4), 808-827.
- Faria, J. R., Cuestas, J. C., & Mourelle, E.(2010). Entrepreneurship and unemployment: a nonlinear bidirectional causality?. *Economic Modeling*, 27(5), 1282-1291.
- Halicioglu, F., & Yolac, S.(2015). Testing the impact of unemployment on self-employment: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95, 10-17.
- Hox, J. J.(2013). Multilevel regression and multilevel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Oxford handbook of quantitative methods*, 2(1), 281-294.
- Hox, J. J., Moerbeek, M., & van de Schoot, R.(2010). *chapter5. Analyzing Longitudinal Data, Multilevel analysis: Techniques and applications*. London: Routledge
- Hwang, B. Y., Kim, J. H., & Bang, J. H.(2013). Impact of Youth Start-Up Business Incubating System On the Start-Up Business Performan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8(1), 149-160.
- Hwang, K. H.(2017). The growth of young self-employed people. *Employment Issue*, 10(5), 5-25, Retrieved from <https://www.keis.or.kr/user/extra/main/2103/publication/publicationList/jsp/LayOutPage.do?categoryIdx=130&pubIdx=4041&spage=1&onlyList=N>.
- Hundley, G. (2006). Family background and the propensity for self-employment. *Industrial Relations, A Journal of*

- Economy and Society*, 45(3), 377-392.
- Jeon, B. Y.(2003). A Study of Selection of Self-employment in Korea. *Korean Journal of Labour Economics*, 26(3), 149-179.
- Keum, J. H., & Cho, J. M.(2000). Theory and Empirical Analysis on the Self - employment Selection. *Korean Journal of Labour Economics*, 23, 81-107.
- Kim, D. K.(2018). The Experience of Self-employed Business and the Income Mobility by Age Group. *Korea Social Policy Review*, 25(2), 281-304.
- Kim, P. H., Aldrich, H. E., & Keister, L. A.(2006). Access (not) denied: The impact of financial, human, and cultural capital on entrepreneurial entry in the United States. *Small business economics*, 27(1), 5-22.
- Kim, W. Y.(2000). Comparative Advantages in the Occupational Choice. *Korean Journal of Labour Economics*, 23, 55-80.
- Kim, Y. B., Lee, J. E., Choi, S. J., Shin, S. O., Lee, H. J., & Jung, H. S.(2018). *The 20th Korea Labor Panel Survey Report*. Sejong: Korea Labor Institute.
- Livanos, I., Yalkin, Ç., & Nuñez, I.(2009). Gender employment discrimination: Greece and the United Kingdom. *International Journal of Manpower*, 30(8), 815-834.
- Moore, C. S., & Mueller, R. E.(2002). The transition from paid to self-employment in Canada: the importance of push factors. *Applied Economics*, 34(6), 791-801.
- Park, J. H., Park, M. S., & Kim, D. Y.(2012).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Youth Start-up in View of Start-up Policy and the Ecosystem. *Proceedings of conference on business Venturing*, 137-165.
- Ryoo, J. W., & Choi, H. Y.(1999). Self-Employed Workers in Korea. *Korean Journal of Labour Economics*, 22, 109-140.
- Ryoo, J. W., & Choi, H. Y.(2000). Labor Market Dynamics in the self-employed Sector in Korea. *Korean Journal of Labour Economics*, 23, 109-140.
- Shin, J. Y.(2011). *Effect of Non-Pecuniary Factor on Self-Employment Exit and Survival*.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 Shin, J. Y.(2017). Relative deprivation, satisfying rationality, and support for redistribu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140(1), 35-56.
- Shin, J. Y.(2019). *The Sociological Mechanism of Support for Redistribution in Capitalism*. Doctoral dissertation Osaka University.
- Simoes, N., Crespo, N., & Moreira, S. B.(2016). Individual determinants of self-employment entry: What do we really know?. *Journal of economic surveys*, 30(4), 783-806.
- Sung, J. M.(2002). The Choice of Self-Employment and Career Interruption Among Females. *Korean Journal of Labour Economics*, 25, 161-182.
- Taylor, M.(1996). Earning, Independence or Unemployment: Why become self-employed.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59, 253-265.
- Taylor, M. P.(2001). Self-employment and windfall gains in Britain: evidence from panel data. *Economica*, 68(272), 539-565.
- Uh, S. B., Yoo, K. S., & Choi, K. S.(2012). An Empirical Study on Effects of Risk Attitude on Choices of Self-Employment. *Korean Journal of labor studies*, 18(1), 35-49.

Study on Entering Self-Employment of Young Workers

Shin, Jaeyoul*
Kim, Jongsung**

Abstract

In recent years, the proportion of youth's self-employed is steadily increasing, and government policy also actively encourages youth to become an entrepreneur. However, most of the domestic precedent studies on the self-employed labor market focus on the middle-aged and the elderly, and previous studies on the self-employed labor market of young people are hardly ever studied. Above all, the study that examines the factors of entry into self-employment of young people is not sufficient and researchers usually utilize the study about for all ages to explain the self-employment market of young people. However, because the young and middle-aged people differ in labor market conditions, family backgrounds, and the level of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separate explanations and theories are needed. Therefore, this study explored the factors of entry into self-employment by separating the age group from 15~29 years old. The data used in the analysis was the 9th to 20th data of the Korea Labor Panel Survey. The youth unemployment rate and employment rate were referred to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of Statistics Korea. The analysis subject was limited to young people who are currently performing economic activities, and the analysis method used multi-level logit model. The mai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lower the unemployment rate and the higher the employment rate, the younger people tend to enter their own businesses on the structural level. Second on the individual level, young people who possess enough financial capital or pursuit personal aptitude or interest tend to enter self-employment. However, there are no statistical effects of human capital and entrepreneur capital.

Key Words: self-employment, self-employment of young workers, push hypothesis, pull hypothesis, entrepreneurship, risk-taking

* First Author,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Global Studies and Collaboration, Aoyamagakuin University, Tokyo, Japan, rec419@hanmail.net

**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Global Entrepreneurship,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01041603713@kookmin.ac.kr